

## 10·26 정치권 빅뱅

# 시민정치 쓰나미 與도 野도 허우적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시민운동가 출신의 박원순 후보가 승리함에 따라 정치권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나라당, 민주당 등 기존 정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 구조가 흔들리면서 내년 총선은 물론 대선 구도도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광주일보의 10·26 재보궐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에 따른 정치권의 지형 변화와 과제를 세차례에 걸쳐 조망한다.

## 민심 수용 못한 기성 정당체제 심판 시민후보에 한나라·민주당 다 패배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은 기존의 정당 체제에 대한 불신으로 집약되고 있다. 지난 9월 대동한 '안풍'(안철수 바람)은 10월 '박원순 쓰나미'로 확산되며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차례로 넘어뜨렸다. 이는 기존 정치권이 민심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를 출범시켰지만 오히려 실업난, 전세난, 양극화가 가중되는 가운데 기존의 정치권이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심은 기존 정당이 아닌 정치권 밖의 새로운 세력에 대한 기대와 지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 상흔들리는 정당정치

#### 중층·대선 구도 급변

#### 해방이권의 진로는

특히, 20~30대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고통을 알고 소통할 수 있는 인물들을 정치적 대안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정치권에 대한 강력한 심판으로 기존의 정당 체제에 상당한 변화를 일으킬 전망이다.

당장 한나라당에서는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나타난 민심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한다면 내년 총선은 물론 대선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가 나서는 등 여권은 물론 보수 진영이 총동원됐지만 서울시장 선거에서 상당한 격차로 패배했기 때문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3구'와 용산 등 4곳에서만 우세를 차지한 점에 경악하고 있다. 이 같은 민심은 내년 총선에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의 참패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당명만 빼놓고 모두 바꾸자는 제창당 수준의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나라당 핵심 인사는 "지도부가 스스로 혁신에 나서지 않는다면 한나라당은 공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며 "처절한 내부 쇄신은 생존의 조건"이라고 절박감을 나타냈다.

이전 선거에서 민심은 민주당에게도 사실상 '중병' 선고와 함께 '야권대통합 및 연대'라는 처방을 내렸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은 후보도 내지 못한데다 서울, 충청, 강원, 영남 등 전북을 제외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모두 패배했기 때문이다. 특히, 5곳에서 치러진 전남지역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은 2곳에서만 승리하는 수모를 겪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과감한 내부 혁신과 변화에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을 통해 수권정당의 모습을 갖추고 다양화된 사회적 욕구와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야권의 만행으로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스스로 기득권을 놓고 범야권 세력과 민심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7일 오후 광주 서구 영주동 빛고을시민체육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의 출품기념회에 참석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지지자들의 환호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나경원 패배 이틀날 광주 온 박근혜

# “국민들 정치권에 화 많이 나신 것”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27일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로 자신의 '대세론'이 무너졌다는 지적과 관련 "언론에서 대세론이라고 하는데 원래 대세론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관련기사 4면> 박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 서구 영주동 빛고을시민체육관에서 열린 이정현 의원의 출품기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전국을 돌며 국민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정치권에 화가 많이 나신 것으로 느꼈다"라며 "정치권 전체가 크게 반성하고 새로운 거둬나지 않는다면 정치권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더 많은 분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치권에서 기정사실화하던 자신의 '대세론'에 안주하지 않고 선

에서 나타난 시대적 요구와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해 자신부터 변화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전 대표는 "그동안 쌓인 정치권의 불신, 약속과 신뢰가 무너진 데 대한 배신감, 그리고 생활고를 해결해 주지 못한 무책임 등에 대한 시민들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원길기자 kzi@kwangju.co.kr

## 여수시의회 지방자치 초유 집단 결위

### 대법 의원 4명 무더기 당선무효형...의정공백 위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의원 4명과 전남도의원 1명이 27일 대법원에서 피선거권 상실형(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의원 4명과 전남도의원 1명이 27일 대법원에서 피선거권 상실형(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은 이날 고효주·강진원·이성수·황치중 등 4명의 여수시의원과 성해석(민·59) 전남도의회 의원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6·2 지방선거 운동기간인 작년 5월말 오 전 시장의 지시를 받은 선거운동원을 통해 각각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이들 4명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에다 뇌물수수혐의까지 추가돼 징역 6월, 집행 2년, 벌금 200만~1000만원을 선고받고 내달 초에 열린 대법원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이

기동·정병관·김덕수 등 3명의 시의원도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큼에 따라 2012년 예산안 심의 등을 앞두고 의정마비 및 공백이 우려된다. 또한, 대법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는 3명의 시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여수시의회는 전체 의원 26명 중 4분의 1이 넘는 7명이 의원직을 잃게 돼 조만간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4분의 1 이상 결원 발생시 60일 안에 보궐선거를 치르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동부취재본부=김정화기자 chkim@

**알림**

**제2회 호남 초·중등 영어학력평가**

응시 쇄도, 접수마감 11월 4일까지 연장

- 접수방법: 광주일보홈페이지 (www.kwangju.co.kr)
- 대상: 광주·전남북 초·중학교 전학년 학생
- 경시대회 일시·장소: 11월 12일(토) 오전 10시 광주·전남북 30개 교사장(추후발표)
- 참가비: 초등학생=JET 22,000원 중학생=TOEIC bridge 29,000원
- 특전: 성적우수자 부상 및 해외여행연수비 지원
- 문의: 광주일보사 062-220-0555

光州日報社

행복한 미소 해피니스컨트리클럽 www.happinesscc.com

행복한 미소가 넘치는

# 해피니스CC로 초대합니다.

고객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해피니스CC가 회원을 모집합니다. 광주에서 15~20분대의 우수한 접근성과 밀리지 않는 정확한 티오프시간으로 고객의 시간까지 책임지는 해피니스CC회원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 모집기간: 2011년 10월 10일 ~ 12월 31일

● 클럽위치: 전남 나주시 다도면 송학리 1219번지

● 코스규모: 총 27홀 Par 108(전장 9,575m), 회원제 18홀, 퍼블릭 9홀

**VIP 정회원**

- ▶ 입회금액: 3억 3,000만원
- ▶ 회원특전: 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동반3인 상시 그린피 50%할인, 연20회 그린피 면제, 월 8회 주말부킹 보장(1회), 골프텔 개장시 할인혜택) - 지정회원 2인: 그린피 면제(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 무기명카드 1매 발급: 그린피 50%할인

**해피정회원**

- ▶ 입회금액: 1억원
- ▶ 회원특전: - 공통: 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 월 4회 주말부킹 보장, 골프텔 개장시 할인혜택 - 선택: C형, D형 중 선택(1) C형) 무기명카드 1매: 그린피 50%할인(연 60회 사용, 1일 1회) 정회원 동반3인 그린피 할인혜택 없음, 지정회원 없음 D형) 지정회원 1인 준회원(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정회원 동반3인 그린피 할인혜택 없음

**중등/평일 정회원**

- ▶ 입회금액: 3,300만원(신속순 30명에 한하여 300만원 할인)
- ▶ 회원특전: 평일회원 1인 그린피 70%할인

※ VIP회원 및 해피·휴먼정회원은 광주은행 담보대출 70%(신용등급에 따라 추가대출 가능). ※ 공개모집 인원 초과시 추첨에 의하여 회원선정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광주은행	001-127-012066	해피니스컨트리클럽(주)	계약금20% 납입후 1개월내 잔금납입

가입문의 Tel 061)330-5000 / Fax 061)300-5009

HAPPINESS 해피니스CC

행복한 미소 해피니스컨트리클럽 www.happinesscc.com

행복한 미소가 넘치는

# 해피니스CC로 초대합니다.

고객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해피니스CC가 회원을 모집합니다. 광주에서 15~20분대의 우수한 접근성과 밀리지 않는 정확한 티오프시간으로 고객의 시간까지 책임지는 해피니스CC회원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 모집기간: 2011년 10월 10일 ~ 12월 31일

● 클럽위치: 전남 나주시 다도면 송학리 1219번지

● 코스규모: 총 27홀 Par 108(전장 9,575m), 회원제 18홀, 퍼블릭 9홀

**VIP 정회원**

- ▶ 입회금액: 3억 3,000만원
- ▶ 회원특전: 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동반3인 상시 그린피 50%할인, 연20회 그린피 면제, 월 8회 주말부킹 보장(1회), 골프텔 개장시 할인혜택) - 지정회원 2인: 그린피 면제(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 무기명카드 1매 발급: 그린피 50%할인

**해피정회원**

- ▶ 입회금액: 1억원
- ▶ 회원특전: - 공통: 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 월 4회 주말부킹 보장, 골프텔 개장시 할인혜택 - 선택: C형, D형 중 선택(1) C형) 무기명카드 1매: 그린피 50%할인(연 60회 사용, 1일 1회) 정회원 동반3인 그린피 할인혜택 없음, 지정회원 없음 D형) 지정회원 1인 준회원(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정회원 동반3인 그린피 할인혜택 없음

**중등/평일 정회원**

- ▶ 입회금액: 3,300만원(신속순 30명에 한하여 300만원 할인)
- ▶ 회원특전: 평일회원 1인 그린피 70%할인

※ VIP회원 및 해피·휴먼정회원은 광주은행 담보대출 70%(신용등급에 따라 추가대출 가능). ※ 공개모집 인원 초과시 추첨에 의하여 회원선정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광주은행	001-127-012066	해피니스컨트리클럽(주)	계약금20% 납입후 1개월내 잔금납입

가입문의 Tel 061)330-5000 / Fax 061)300-5009

HAPPINESS 해피니스CC